

## Development of a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Song, Hong-Jun<sup>1)</sup> (Namseoul University)

---

< ABSTRACT >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To do this, Three times delphi survey, items development, two pilot surveys were condu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then the measurement scale was confirmed. The delphi survey was examined by a panel of 12 experts who majored in Education. Question items were developed by two experts and survey was done in K and N university in Coongcheongnam province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items.

As the result of exploratory factors analysis, items under .40 factor loadings were eliminated. 5 items in active listening and understanding, 5 items in understanding topic, 5 items in mutual understanding, 5 items in consideration, 3 items in answering to question, and 4 items in document writing were consisted of and reliability were acquired. In order to secure the final items. 573 university students' s data were examine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rough the second pilot test. The absolute degree of goodness of fit test for items fitness met criteria ratio as follows, GFI .912, RMR .035, RMSEA .035, The incremental fitness was CGI .937, TLI .901, so the fitness was confirmed. To confirm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andardized coefficient values, decision coefficients, and conceptual reliability were examined. The standardized coefficients ranged from .533 to .801, the mean variance extraction index (AVE) ranged from .516 to .681, and the reliability was .760 to .854. So, the measurement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was proven to be well-constructed.

**Key Words:** core competency, communication competenc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

1) Corresponding Author: Song, Hong-Jun, Namseoul University, Sangkyeong Building 3505, Daehak-ro, Seonghwan-eub, Seobook-goo, Cheonan-city, Choongnam, Korea, 31020 / E-mail: shj-68@hanmail.net

## 대학생용 의사소통역량 측정도구 개발

송홍준<sup>1)</sup> (남서울대학교)

---

### < 요약 >

---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문항개발, 예비조사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수집 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교육학을 전공한 교내 전문가 6명, 교외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총 12명의 전문가 패널에 의해 이루어 졌다. 문항개발은 문항개발 전문가 2명에 의해 제작 되었고, 충청도 소재 K대학 및 N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차 예비조사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 요인적재량 .40에 미달한 질응응답 23번 문항, 25번 문항, 문서작성 능력 10번을 제거 하였다. 남은 의사소통역량의 하위요인은 질의응답 능력에서 적극적 경청과 이해영역에서 5개, 주제이해 능력에서 5개, 상호이해 능력에서 5개, 배려능력에서 5개, 질의 응답능력에서 3개, 문서작성 능력에서 4개였다. 이들은 요인적재량, 내용타당도, 신뢰도를 검증 받았다. 최종 문항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생 573명에게 2차 예비조사를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절대 적합지수는 GFI .912, RMR .035, RMSEA .035로 기준을 만족했다. 충분 적합지수는 CGI .937, TLI .901로 기준지수를 검증 받았다. 잠재변인의 수렴타당도 및 판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 계수값, 결정계수, 개념 신뢰도를 검사하였다. 표준화 계수는 .533~.801이고, 개념 신뢰도는 .760~.854이며, 평균분산 추출지수(AVE)는 .516~.681로 기준값을 만족시켰다.

**주요어:** 의사소통 역량, 핵심역량,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

---

1) 교신저자: 송홍준, (3102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남서울대학교 / E-mail: shj-68@nsu.ac.kr  
논문투고: 2018. 08. 27 / 심사일자: 2018. 09. 23 / 게재확정일자: 2018. 09. 26

## I. 서론

인간사회는 의사소통 없이 존립 할 수 없다. 인간관계 뿐 아니라 지식과 사회적 인식 등, 한 사회가 운용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은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습득된다. 인간의 삶은 타인과의 소통으로 영위되며, 의사소통의 강화를 통해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구축해 나간다. 소통은 근본적으로 설득의 과정이며, 이 과정 속에서 생각은 표현되고 교환되며 이해된다. 인간관계뿐 아니라 지식과 사회적 의식 등 한 사회가 운용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의사소통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다.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의사소통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사회가 전문화 되고 세분화될수록 의사소통 역량은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된다(한상우, 김중규, 원만희, 2015). 그 과정에서 개인 간의 참여와 협력이 강조되며 의사소통역량은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여겨지고 있다(김영희, 강문실, 2015). 최근 대학교육의 흐름도 핵심역량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학교육에 핵심역량이 대두되면서 고등교육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시장은 빠른 변화와 정부주도의 고등교육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대학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성과와 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노운신, 리상섭, 2013).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대학교육현장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역량과 관련된 논의는 보다 활발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학문적인 토대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이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핵심적인 역량을 발달시키고 올바른 교육방향을 이끄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박민정, 2008; 박용호, 전주성, 백종면, 2014; 소경희, 2006; 신현석 외, 2010; 유덕현 외, 2013). 그러므로 대학에서 핵심역량을 선정하는 것은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설계, 개발, 운영하는데 중요하다.

의사소통역량은 고등교육 단계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 선정되었고(유현숙 외, 2011), 대학생이 습득해야 할 직업 기초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선정되었다(진미석 외, 2007).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내 대학생들이 한국 상황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에 의사소통 역량을 포함 시켰다(김대연 외, 2008). 의사소통 역량은 모든 사회 조직과 사회현상의 기본을 형성하는 토대이다. 사람들 간의 정보 및 정서교류, 개인이나 집단 간의 계약관계나 권력관계, 문화의 세대 간 전달 및 사회 산업구조의 변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나은영, 2002).

최근 사회 산업구조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4차 산업으로 빠르게 옮겨지고 있고 의사소통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은 인공지능, 로

봇, 사물 인터넷, 무인자동차, 3D 프린팅, 나노와 바이오 공학 등이다.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김민, 2016). 효과적인 융합을 이루는 것은 의사소통 역량이다. 4차 산업의 의사소통 역량은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화되며, 생산, 관리, 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에서 일어날 것이다. 의사소통 역량은 대대적으로 진행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데 필요하다(김민, 2016). 급변하는 사회구조에서 대학 졸업 후 어떤 직업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 간에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역량은 필수 불가결 하다(진미석, 박경현, 2014).

사회구조에 필요한 역량의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소통역량 중 수용력은 정보활용 능력 중 정보요구, 정보검색, 정보평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역량 전달력은 정보활용 능력 중 정보통합, 정보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역량 중 조정력은 정보요구, 정보검색, 정보평가, 정보통합, 정보표현, 정보윤리 등 정보활용 능력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상우, 김원중, 2016).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부재는 팀웍에 결정적 장애 요소이다. 반면에 원활한 의사소통역량은 문제해결을 잘 해내는 중요한 요인이다(Lucas, 2012; Peduzzi, 2001).

의사소통의 구성요인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Trenholm과 Jensen(2000)은 대인간 의사소통역량 모델을 제안하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인지적 과정에 개입되는 역량에 초점을 두었다. 이들은 시각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수준의 외부 수행역량과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인지적 활동을 포함한 내부 프로세스 역량을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Monge 등(1982)은 의사소통역량으로 목표 형성과 달성할 수 있는 역량,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역량,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아주대학교에서 개발한 아주 종합의사소통역량 평가도구(Ajou Communication Ability Test, A-CAT)에서는 수용과 이해 역량, 전달과 표현 역량, 비판과 문제해결 역량의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의사소통역량의 하위요인이 고등교육 교육과정에 성과로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역량이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길러지는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사소통 역량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교수법 개발이나, 일반적인 학습자 특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수학습 맥락을 고려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박은아, 송해덕, 2014). OECD의 AHELO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교육성과의 객관적인 측정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측정도구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사업 등 대학교육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사업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교육성과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측정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진입해 있다(이진희, 김형규, 홍성연, 2014). 의사소통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의

특성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의사소통역량을 진단하기에 적합한 도구를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의사소통역량의 중요성과 더불어 학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역량 측정도구 개발에 관련하여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이진희, 김형규, 홍성연,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교육에서 대학생에게 객관적으로 의사소통역량을 조사하는 측정도구를 제작하고, 개발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입증하려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을 대상 의사소통 역량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을 대상 의사소통 역량의 측정도구는 타당한가?

## II. 연구의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의사소통 역량 모델 및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절차 및 방법을 진행했다.

### 1. 연구절차

의사소통역량의 측정도구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연구를 진행했다.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델파이 조사를 한 후 문항개발을 실시했다. 델파이 조사방법은 1950년대 미국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최초로 활용하였으며, 현재는 미래를 예측하는 문제뿐 아니라 측정도구 개발에서 활용되고 있다(박동열, 주인중, 진미석, 최선아, 2010). 측정문항의 타당도, 신뢰도 및 적합도를 확보하기 위해 2차에 걸친 예비조사를 한 후 의사소통 측정문항을 확보했다. 연구절차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절차

단계	연구방법	주관	산출내용
1	문헌연구	연구원	국내 선행연구 분석 국외 선행연구 분석
2	델파이1차	델파이전문가 패널	개방형 설문지 결과확보
3	델파이2차		폐쇄형 설문지 결과확보
4	델파이3차		의사소통역량 모델 구성
5	문항개발	문항개발전문가	의사소통역량 주 역량별 하위역량 문항개발
6	예비조사1차	탐색적 요인분석	의사소통역량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확인
7	예비조사2차	확인적 요인분석	의사소통역량 측정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및 적합도 확보
8	확정	연구원	의사소통역량 측정도구 최종 확정

## 2. 델파이 조사

의사소통 역량의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델파이 1차 설문지 구성에 활용하였다. 델파이 1~3차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교내 6명과 교외 6명 총 12명으로 구성된 델파이 전문가 패널을 구성했다.

## 3. 문항개발

문항개발은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 2명에 의해 개발하였다. 유사한 내용이 여러 하위역량에서 나타나면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제작하였고, 성취해야할 가치가 있는 내용과 능력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문형은 5점 척도의 자기보고형으로 제작하였다.

## 4. 자료처리

개발된 의사소통역량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및 문항 적합도를 확인했다. 12명의 델파이 전문가 패널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내용타당도 비율 CVR(Contents Validity Ratio)을 진행했다. Lawshe(1975)는 전문가 패널이 12명인경우는 유의도 수준 .05수준에서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CVR값이 최소 0.56이상 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항수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I-CVI (Item Level Content Validity Index)를 진행했다. 문항수준 I-CVI는 .78이상이면 문항으로 선택한다 (Polit & Beck, 2006; Beck & Owen, 2007). 구인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요인적재량,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을 SPSS 23.00과 AMOS 23.00을 활용했다.

## 5. 측정도구 개발

### 가. 연구대상

의사소통역량 측정도구의 문항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 및 문항 적합도를 확보하기 위해 충청도 소재 K대학 및 N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1차 예비조사는 310명, 2차 예비조사는 573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 2> 연구대상자 특성

예비조사	성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
1차	남	87	25	33	6	151
	여	54	62	29	14	159
	전체	141	87	62	20	310
2차	남	182	59	46	27	314
	여	93	83	48	35	259
	전체	275	142	94	62	573

### Ⅲ. 연구결과

#### 1. 구성요인 도출

의사소통역량의 구성을 위해 문헌연구, 델파이 3차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철학을 전공한 교육학 교수, 직업능력 개발원 연구원으로 구성된 12명의 델파이 전문가 패널로부터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역량 모델을 구축하고, 국문학, 교육학을 전공한 문헌전문가 2명에 의해 핵심역량 측정문항을 확보했다.

#### 가. 문헌연구 결과

문헌조사는 국내외 조사를 실시했다. 1972년부터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아래 <표 3>은 문헌연구 결과를 나타낸다.

<표 3> 의사소통역량의 문헌연구 결과

저자	내용	하위 요소
Hymes (1972)	언제 말하고 언제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	-문법적 지식 -언어심리적 지식 -사회 문화적 지식
DeVito (2000)	의사소통은 개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며, 의사소통의 내용에 대한 사회적 판단은 그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에 의해 영향을 줌	-물리적 맥락 -문화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시간적 맥락
Vesna (2007)	언어기호에 통달하는 문법적 능력, 의미와 형식의 면에서 발화의 적절성에 대해 통달하는 사회언어학적 능력, 통일성 있는 구어 또는 문어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 문법적 형태들과 의미를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 통달하는 담화능력, 의사소통의 중단을 보완하고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언어적비	-문법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능력 -전략적 능력

저 자	내 용	하위 요소
	언어적 전략에 대해 통달하는 전략적 능력	
이창호 (2012)	의사소통이란 집단이나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견이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이해함으로써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	-문어소통능력 -구어소통능력
김대희 강경숙 (2012)	의사소통 능력은 말하기 능력, 듣기능력, 공통능력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뉨	-말하기 능력(유창성, 논리적 능력,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자기표현, 발음) -듣기능력(사실적 듣기, 추상적 듣기, 비판적 듣기, 공감적 듣기) -공통능력(맥락, 사회적 관계, 태도)
홍아정, 조윤성, 박치경 (2015)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글과 말을 읽고 들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뜻한 바를 파악하고, 자기가 뜻하는 바를 글과 말을 통해 정확하게 쓰거나 말하는 능력	-문서이해능력 -문서작성능력 -경청능력 -의사표현능력 -기초외국어능력
김완중, 한상우 (2016)	개인이 접하는 주변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행동 지식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	-수용력 -전달력 -조정력

### 나. 델파이 조사결과

1차 델파이는 개발형 설문지를 활용했고, 2차 델파이는 1차 결과를 분석하여 주 역량과 하위역량의 중요도를 묻는 폐쇄형 설문지로 제작하여 시행하였다. 3차 델파이를 거쳐 최종 의사소통역량 모델을 확정했다(<표 4> 참조).

<표 4> 델파이 설문문항 구성

델파이	구분	내용	문항유형
1차	인적사항	성별 및 이름 소속 및 전공	폐쇄형 폐쇄형
	연구내용	연구 목적, 필요성 및 범위 국내·외 관련연구	폐쇄형 폐쇄형
	지시문	학생이 학교생활 및 직장에서 의사능력이 필요한 상황을 서술하고, 해당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하위영역으로 기술	개방형
	인적사항	소속 및 이름	폐쇄형
2차	하위역량 및 정의	델파이 1차 조사를 통해 추출된 45개의 하위역량 및 정의 제시 후 5점척도의 중요도를 설문	폐쇄형
	45개 하위역량	정보수집 및 이해능력, 사전준비능력, 기획력, 사실파악능력, 토론 및 조정능력, 해석능력 등을 제시	폐쇄형
3차	인적사항	소속 및 이름	폐쇄형
	하위역량	2차 델파이에서 중요도를 기준으로 14개 하위역량 구성을	폐쇄형



범주	구성하고, 하위역량의 범주를 인식, 과정, 대안, 태도로 나누어 제시	
하위역량, 정의 및 변산도	2차 델파이에서 추출된 하위역량의 정의 및 (중앙값과 사분점간 범위) 제시 후 중요도 조사를 실시함	폐쇄형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45개의 하위역량을 확보했고,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14개의 하위역량을 추출 했다.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총 6개의 하위역량을 확정했다<표 5> 참조.

<표 5> 델파이 조사 결과

델파이	결 과
1차	45개의 하위역량 확보(정보수집 및 이해, 정보확인 및 문서작성,정보조질 및 전달,적극적경청과이해,사전준비,기획력,사실파악,토론과조정,해석,정보분석,정리,한계성인식,설득,논리력,표현,자기드러내기,문장기술,말하기,담화,질의응답,바른발표자세,발음의명확성,전문지식소유,기초외국어능력,다문화수용,사회언어학적능력,언어심리학적지식,대안적아이디어,주제에대한 이해능력,정보종합,역할수행,독서,문서작성,사회적관계,인간에대한이해,분위기형성,의도파악,상호이해,예의,배려,공감,소통방법,사회문화적맥락,문제해결의지)
2차	14개의 하위역량 추출(적극적 경청과이해,정보확인 및 문서작성,공감,배려,질의응답,주제에대한이해,표현,문장기술,정보종합,말하기,문서작성,사회적관계)
3차	6개 하위역량 및 정의확정 (적극적경청과 이해,주제이해,상호이해,배려,질의응답,문서작성)

### 다. 의사소통역량 구성

3차에 의해 추출된 의사소통역량의 하위역량은 적극적 경청과 이해, 주제이해 능력, 상호이해 능력, 배려능력, 질의응답 능력, 문서작성으로 구성되었다. 의사소통역량의 정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하고,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능력이다. 하위역량의 정의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의사소통역량 하위역량 및 정의

하위역량	정 의
적극적 경청과 이해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
주제이해 능력	주제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상호이해 능력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
배려 능력	자신의 방식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질의응답 능력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는능력
문서작성	필요한 문서를 다루고 만들어 내는 능력

**라. 문항개발**

2명의 문항전문가에 의해 하위역량별 문항을 구성했고, 의사소통역량 및 하위요인의 정의를 바탕으로 측정문항을 제작하였다. 문항은 5문항씩으로 구성했다. 문항은 부정어를 피하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진술했다. 진술 문장이 너무 길 때는 항목으로 나누었고, 한 문장의 길이는 15자 내외로 했다(<표 7> 참조).

<표 7> 의사소통역량 측정 문항내용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적극적 경청과 이해	1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상태나 감정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며 듣는다.
	3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듣더라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
	4 친구의 얘기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도 잘 들어주는 편이다.
	5 팀 프로젝트 수행 시, 반대의견도 집중하여 경청한다.
주제이해 능력	11 인문학 서적(그리스 로마신화, 논어, 국가론 등)을 읽고 난 후, 책의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12 글을 읽으며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구분한다.
	13 영화나 책을 보고나면 작가의 의도를 잘 알아챈다.
	14 자료에서 중요한 핵심어나 강조점을 잘 찾는다.
상호이해 능력	6 내가 거의 모르는 영역의 프로젝트를 맡아도 바로 시작한다.
	15 친구들로부터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16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주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17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왜 그랬을지 생각해 보는 편이다.
배려능력	18 불행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걱정된다.
	7 내 의견은 팀에서 가장 중요하다.
	19 나와 의견이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배우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20 무엇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는 편이다.
질의응답 능력	21 약속을 잡을 때 다른 사람의 상황을 먼저 생각한다.
	22 다른 사람이 양보하기 전에 내가 양보하는 편이다.
	8 팀 프로젝트 수행 시, 비록 빠르게 진행 가능한 것도 팀원에 맞추어 속도를 조절한다.
	23 평소 수업시간에 다른 친구들의 질문에 답을해주는 편이다.
	24 수업시간에 교수님께 좋은 질문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25 생각하는 바대로 정확하게 질문한다.
	26 질문에 대답을 할 땐 질문 연관된 내용을 전달한다.
	9 다양한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

하위역량 번호	문항 내용
문서작성 능력	27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때 메뉴를 클릭하는 것 보다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다.
	28 교수님이 원하는 형식대로 리포트를 잘 작성한다.
	29 글을 쓸 때, 나의 생각을 일관성 있게 잘 정리한다.
	30 글쓰기를 시작하는 일은 쉽다.
	10 시간이 많이 걸려도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놓는다.

## 2. 타당도 검증

### 가. 구인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구인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선 요인적재량을 확인했다.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인적재량이 .4이하면 제거 Song(2016) 해야 한다는 기준을 따랐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해 질의응답 영역의 23문항, 25문항과 문서작성능력의 10문항은 요인적재량 기준에 미달하여 제거하였다. 내용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12명의 전문가 패널이 내용 타당도 비율 CVR(Contents Validity Ratio)과 문항수준 내용타당도 I-CVI(Item Level Content Validity Index)을 실시했다. 질의응답 영역의 23번 문항, 25번 문항과 문서작성능력의 10번 문항을 제외하면 CVR값이 .59~.79로 기준값 .56을 넘겼고, I-CVI값은 .86~1.00으로 기준값 .78을 초과했다. 하위역량별 신뢰도(Cronbach  $\alpha$ )값은 .751~.897로 기준값 .60을 모두 넘겼다 (<표 8> 참조).

<표 8> 의사소통 역량

하위역량	문항 번호	요인 적재량	내용타당도		신뢰도 (Cronbach $\alpha$ )
			CVR	I-CVI	
적극적 경청과 이해	1	.683	.72	1.00	.856
	2	.659	.70	1.00	
	3	.689	.69	.94	
	4	.746	.62	.94	
	5	.741	.59	1.00	
주제이해능력	11	.571	.57	1.00	.816
	12	.652	.80	1.00	
	13	.710	.68	.94	
	14	.661	.64	1.00	
	6	.659	.73	1.00	

	15	.681	.78	1.00	
	16	.746	.71	1.00	
상호이해능력	17	.675	.61	.94	.897
	18	.530	.62	.86	
	7	.678	.79	1.00	
	19	.638	.70	1.00	
배려능력	20	.590	.74	1.00	.842
	21	.830	.79	.94	
	22	.484	.68	.94	
	8	.527	.64	.86	
	23	.372	.59	.94	
질의응답능력	24	.656	.63	.94	.776
	25	.371	.42	.94	
	26	.859	.62	1.00	
	9	.530	.79	1.00	
	27	.505	.70	.94	
문서작성능력	28	.717	.74	.86	.751
	29	.627	.79	1.00	
	30	.505	.68	1.00	
	10	.381	.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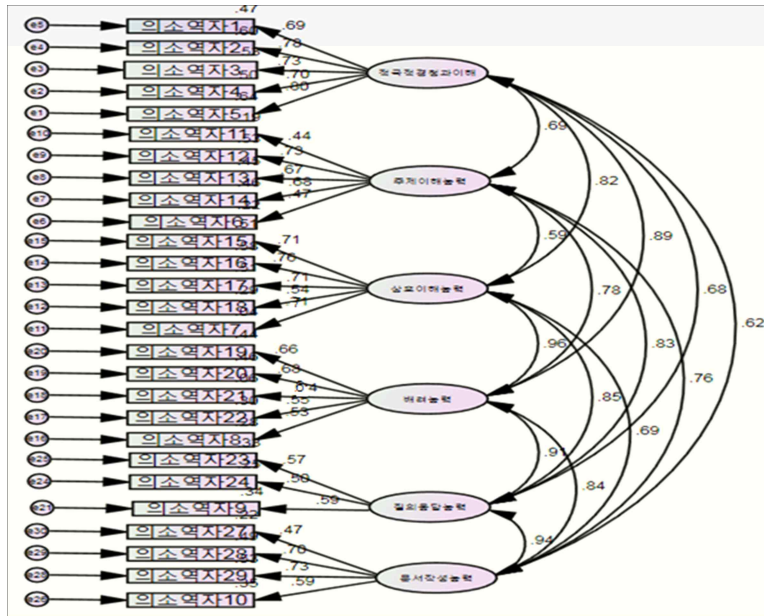
표집의 적합성을 위해 Kaiser-Meyer-Olkin(KMO) 검사를 실시했다. KMO 지수는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다른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KMO수치가 .09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80~.89면 꽤 좋은 편, .70~.79면 적당한 편, .60이하면 바람지 못한 편이다 (이순목, 1995). 본 연구에서는 .907로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KMO 검사결과

KMO 표본적합도	근사카이제곱	DF	유의수준
.907	3913.397	435	.000

#### 나. 내용 타당도(CVR)

3개의 문항을 제거하고 구인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AMOS 23.0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하위영역 6개와 문항을 활용하여 모형을 세우고, 검증을 실시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의사소통역량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추정결과는 카이제곱값이  $p=.000$ 으로 기준  $p>.05$ 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카이제곱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모형에 대해서도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영가설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카이제곱값을 자유도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 값( $X^2/df$ )이 3보다 작으면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고, 2보다 적으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세희, 2000). 표준 카이제곱 값이 2.75이므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절대적 적합도 GFI는 .912, RMR .37, RMSEA .35로 선택기준선 범위에 들었다. 증분적 적합도 CGI는 .937, TLI .901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표 10>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추정결과

모형	모수	절대적 적합도				증분적 적합도	
		카이제곱/자유도	GFI	RMR	RMSEA	CGI	TLI
선택기준 (김계수, 2007)		$p>.05$	.90이상	.05이하	.05이하	.90이상	.90이상
추정모형	301	$826.132/300 = 2.75$ $p=.000/300$	.912	.037	.035	.937	.901

잠재변인의 공인타당도,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를 측정했다. 의사소통역량 측정도구의 공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 척도 간 Person의 적률상관분석(이석제,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2003)을 실시했다. 표준화 계수값이 .50이상, 결정계수(C.R.: Critical Ratio) 값이 1.965이상, 개념신뢰도가 .50이상이면 수렴타당도가 인정되고, 평균분산추출 지수(AVE)가 .50이상이면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변별 타당도를 확보 했다(Nunnally, 1994, 김계수, 2009, Hair et al., 2009)고 판단한다. 모든 척도 구성범주들 간 적률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 공인 타당도를 확인했다. 표준화 계수는 .533~.801이고, 결정계수(C.R.)는 3.319~14.239, 개념신뢰도는 .760~.854로 수렴 타당도를 확보했고, 평균분산 추출지수(AVE)는 .516~.681으로 나타나 변별 타당도를 만족 시켰다(<표 11> 참조).

&lt;표 11&gt; 개념타당도 분석결과

요인	요인부하량	S.E.	C.R.	오차항	<i>p</i>	AVE	개념 신뢰도	
적극적 경청 과 이해	1 ->P5 ->P4 ->P3 ->P2 ->P1	1 .927 .932 1.04 .915	.073 .07 .073 .074	12.731 13.269 14.329 12.331	.801 .704 .729 .776 .686	*** *** *** ***	.681	.854
주제이해 능력	1 ->P6 ->P14 ->P13 ->P12 ->P11	1 1.295 1.36 1.368 1.009	.182 .192 .186 .179	7.114 7.096 7.342 5.627	.668 .676 .671 .731 .440	*** *** *** ***	.580	.818
상호이해 능력	1 -> P7 -> P18 -> P17 -> P16 -> P15	1 2.617 3.055 3.69 3.346	.788 .891 1.071 .976	3.319 3.429 3.447 3.429	.612 .536 .711 .760 .711	*** *** *** ***	.597	.829
배려능력	1 ->P8 ->P22 ->P21 ->P20 ->P19	1 1.015 1.237 1.32 1.247	.133 .32 .152 .146	7.613 3.866 8.694 8.558	.533 .549 .541 .678 .660	*** *** *** ***	.584	.812
질의응답 능력	1 ->P9 ->P24 ->P23	1 .991 1.035	.136 .127	7.289 8.143	.586 .698 .574	*** ***	.516	.760
문서작성 능력	1 ->P10 ->P29 ->P28	1 1.081 1.092	.117 .12	9.28 9.08	.595 .727 .702	*** ***	.569	.840

요인	요인부하량	S.E.	C.R.	오차항	<i>p</i>	AVE	개념 신뢰도
->P27	.927	.137	6.761	.671	***		

\*\*  $p < .01$ , \*\*\*  $p < .001$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를 정하기 위한 의사소통 역량을 구조화 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타당성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3차에 걸친 델파이조사 및 2차의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의사소통역량 모델을 하위역량은 적극적 경청과 이해, 주제이해, 상호이해, 배려, 질의응답과 문서작성 총 6개이다. 적극적 경청과 이해는 김대회, 강경숙(2012)의 듣기능력(사실적 듣기, 추상적 듣기, 비판적 듣기, 공감적 듣기)와 일치한다. 주제이해는 이창호(2012)의 문어소통능력과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상호이해 능력은 김대회, 강경숙(2012)의 공통능력(맥락, 사회적 관계, 태도)과 일치. 배려는 김완중, 한상우(2016)의 수용력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서작성능력은 홍아정, 조운성, 박치경(2015)의 문서이해 및 작성능력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질의응답영역은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부각된 영역으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구성된 의사소통의 정의는 델파이 12명의 전문가 패널에 의해 내렸다. 적극적 경청과 이해는 자신의 편견배제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주제이해 능력은 주제의 핵심내용 이해에 초점을 두었다. 상호이해능력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접근했다. 배려능력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았다. 질의응답 능력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능력으로 정의했다. 문서작성능력은 필요한 문서의 능숙한 제작으로 보았다.

문항전문가에 의해 제작한 측정문항의 타당도는 1차 예비조사를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적재량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3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적극적 경청과 이해영역에서 5개 문항, 주제이해 능력에서 5개 문항, 상호이해 능력에서 5개 문항, 배려능력에서 5개 문항, 질의응답능력에서 3개 문항, 문서작성능력에서 4개 문항이 내용타당도, 준거타당도, 개념타당도, 신뢰도, 적합도 기준선을 넘겨 타당성을 확보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갖춘 의사소통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한 것이다. 적극적 경청과 이해, 주제이해 능력, 상호 이해능력, 배려능력, 질의응답 능력 및 문서작성능력은 측정 하위역량으로 측정값을 구성하는 변

인이 된다. 델파이 전문가는 4차 혁명 시대에 필요한 의사소통 역량의 요인으로 문서작성 능력을 선정했다. 둘째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교육목표, 평가의 준거 및 기준을 마련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 역량을 진단하기에 적합한 도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진희, 김형규, 홍성연, 2014)을 해결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학생 요구분석 및 환경 분석을 하는데 활용 할 수 가 있다. 교양, 전공, 비교과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을 학습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측정결과는 향후 교육과정 설계 및 개발에 개선요인을 찾기 위한 학습 성과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의사소통 역량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지역만을 대상으로 1차, 2차 예비조사를 해서 지역적 제한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층화추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또한 측정문항이 5점 Likert형태의 자기 보고형으로 구성되어서 학생이 측정당일의 감정이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 학생의 능력을 심층적이고 질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문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 대학과 연계하여 전국에 대학을 층화추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해 타당성을 고도화하는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측정도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찰법, 면접법, 동료 평정법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 측정도구 개발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역량 뿐 아니라 21세기 대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핵심역량을 구명하고 관련 측정도구를 개발 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김계수 (2007).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계수 (2009).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대회, 강경숙 (2012). 고등학생 의사소통 능력 진단도구의 개발. **국어교육연구**, 45(1), 212-256.
- 김민 (2016).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내용과 시사: 4차혁명, 글로벌 성장원동력으로**.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김영희, 강문실 (2015). 실천학습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효과. **교양교육연구**, 9(4), 211-243.
- 김종규, 한상우, 원만희 (2015). 의사소통역량 평가를 위한 자기 진단 모형 개발. **한국수사학회**, 23(1), 389-422.
- 김태준, 백선희 (2014). **청소년 역량 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사회 참여 역량 측정 도구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나은영 (2002). **사회심리학 관점에서 본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울: 한나래.
- 노운신, 리상섭 (2013) 국내 4년제 대학교 대학생의 역량모델 구축 사례: D 여대를 중심으로. **기업교육연구**, 15(1), 79-101.
- 박동열, 주인중, 진미석, 최선아 (2010). 텔파이 조사를 활용한 직업능력모형개발. **직업교육연구**, 29(4), 349-385.
- 박민정 (2008).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담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육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6(1), pp173-197
- 박용호, 전주성, 백종면 (2014). 국립대학교 교직원 역량모델 개발 및 교육요구도 분석. **한국HRD연구**, 9(1), 51-67
- 소경희 (2006). 학교지식의 변화요구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설계방향 탐색. **교육과정연구**, 25(1), 39-59.
- 소정희 (2009).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7(1), 1-20.
- 신현석, 안선희, 최보윤, 신원학, 이준희, 정우진, 주휘정, 정주영, 김민정, 엄준용 (2010). 대학입학전형요소로서 대학 인재상의 활용방안 탐색: 입학사정관제에서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HRD연구**, 12(1), 265-291.
- 유 덕현, 유기원, 김민희, 신준석, 김부현 (2013). 이공계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대학

- 연구인력의 역량모델 및 교육훈련로드맵 개발. **HRD연구**, 15(1), 247-271.
- 유지원, 류다현, 이미나 (2015).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의 문제해결역량, 의사소통역량, 진로 개발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 **교육과학연구**, 146(2), 31-56.
- 유현숙, 고장완, 임후남( 2011).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및 종합적 사고력에 영향을 주는 학습과정 요인분석. **교육행정연구**, 29(4), 319-337.
- 이순목 (1995). **요인분석 I (2nd edition)**. 서울: 학지사.
- 이은경, 김정덕 (2014). 대학생의 성격 유형과 K-CESA 비인지적 핵심역량과의 관계. **한국 핵심역량교육학회 학술대회지**, 1(1), 115-137.
- 이석재, 장유경, 이현남, 박광엽 (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의사소통능력, 문제 해결능력, 자기주도적학습능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경 (2002).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방법론에 대한 고찰 :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정 체계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18(4), 25-56.
- 이진희, 김형규, 홍성연 (2014).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의사소통 역량 평가 개발. **교양교육 연구**, 8(2), 299-332.
- 이창호 (2012). 이주민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일 고찰. **다문화사회연구**, 5(1), 5-32.
- 진미석, 박경현 (2014). 대학생 핵심역량으로서의 의사소통 역량의진단과 특성. **한국어교육 학회**, 146(1), 25-56.
- 진미석, 박경현 (2012). **대학생 핵심역량으로서의 한국어 의사소통역량 진단과 특성**. 한국어교육학회 제 277회 학술대회.
- 진미석, 박경현 (2014). **사회적 요구와 국어교육 : 대학생 핵심역량으로서의 한국어 의사소통역량 진단과 특성**. 한국어교육학회 제 277회 학술대회.
- 진미석, 손유미, 주휘정 (2011).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계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연구**, 29(4), 461-486.
- 진미석, 이수영, 유한구, 채창균, 박천수(2007).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선정 및 문항개발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성태제 외(2009). **대학생 직업기초능력 진단종합검사: 의사소통능력 진단평가도구 개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손영화 (2016). 대학생의 의사소통 역량 측정 도구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Speech & Communication**, 15(1), 83-107.
- 진미석, 이수영, 유한구, 채창균, 박천수 (2007). **대학생직업기초능력 선정 및 문항개발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상우, 김종규, 원만희 (2015).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역량 간의 관계에 대한 실

- 증적 연구. *수사학*, 24(1), 337-358.
- 한상우, 김완중 (2016). 대학생의 의사소통역량이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377-394.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임상*, 19(1), pp161-177.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Campbell, R., & Wales, R. (1970). *The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In L. John (Ed.), *New horizons in linguistics*. Harmondsworth: Penguin.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Retrieved September 29, 2013. Applied Linguistics.
- Cooley, R. E., & Roach, D. A. (1984). *A conceptual framework*. In R. N. Bostrom (Ed.), *Competence in communicati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CA: Beverly Hills.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47.
- Canale, M. (1983). *From communicative competence to communicative language pedagogy*. In J. Richards & R. Schmidt (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London: Longman.
- DeVito, J. A. (2000). *Human communication*. Walikota-travel.com.
- Dubin, F., & Olshtain, E. (1986). *Course desig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bermas, J. (1970). *Towards a theory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n H. Dreitzel (Ed.). London: Collier-Macmilian .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6(1), 1-55.
-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 J. Holmes (Eds.), *Sociolinguistics. selected readings*. Harmondsworth: Penguin.
- Halliday, M. A .K. (1973). *Explorations in the functions of language*. London: Edward Arnold.
- Lawshe, C. H. A. (1975).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1.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Liu, L. A., Chua, C. H., & Stahl, G. K., (2010). Quality of communication experience:

- definition, measurement, and implication for intercultural negoti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5(1), 469-487.
- Lucas, S. E. (2012). *He art of public speaking* (11th ed.). NY: McGraw-Hill Global Education Holdings.
- Monge, P. R., Backman, S. G., Dillard, J. P., & Eisenberg, E. M. (1982). *Communication competence in the workplace: Model testing and scale development*. KY: Communication Yearbook.
- Nunnally, J. (1978). *Psychometric methods*. NY: McGraw-Hill.
- Peduzzi, M. (2001). Multiprofessional healthcare team: concept and typology. *Rev Saúde Pública*, 35(1), 103-109.
- Savignon, Sandra (1997). *Communicative competence: theory and classroom practice: texts and context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2nd ed.). NY: McGraw-Hill.
- Savignon, S. J. (1997). *Communicative competence: An experiment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PA: Center for Curriculum Development.
- Song, J. J. (2016). *Statistical anlysis method on SPSS/AMOS* (2nd edition). Paju: 21 Century Book Publisher.
- Trenholm, S., & Jensen, A. (2000). *Interpersonal Communication* (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